

1. 2009년 출판만화 발행 현황

우리나라의 오프라인 만화는 제작 형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여점과 서점, 대본소 등에 공급되는 평균 190쪽 내외의 코믹스와 기획만화를 통칭하는 만화단행본, 학습만화라고 불리는 200쪽 내외의 어린이만화, 그리고 대본소로 주로 공급되는 120쪽 내외의 일일만화, 끝으로 주간, 격주간, 월간, 격월간 등으로 발행주기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만화잡지가 그것이다.

2009년 이 네 가지 출판만화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만화단행본은 평균 3,730종 1,726만 부를 발행하여 1종당 평균 발행 부수는 4,626부이다. 시장 규모는 902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2009년에 발행된 총 만화단행본 가운데 서울문화사, 대원씨아이, 학산 문화사가 약 61%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어린이만화는 총 927종이 발행되었지만 시장 규모는 2,362억 원에 달해 출판만화 전체 시장의 67%를 차지했다.

일일만화는 지난 2003년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 2009년 130억 원의 시장 규모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가 하락한 것이다. 총 4,454종 423만 부의 발행부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1종당 평균 발행 부수가 950부에 불과한 수치였다.

만화잡지는 상업만화잡지('장르만화잡지'라고도 표현된다)와 어린이만화잡지를 합쳐 대략 83억 원의 시장 규모를 보였으며, 총 225종을 발간했다.

<표 2-2-1> 만화 발행 현황

	만화단행본	어린이만화	일일만화	만화잡지	합계
발행 종수 (종)	3,730	927	4,454	225	9,336
시장 규모(억 원)	902	2,362	130	83	3,477

이와 같은 2009년 출판만화 시장은 우리나라 출판 시장 2조 7천억 원 가운데 약 1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